

在日大韓基督教會
宣教70年을 향한 標語

1. 教會에 革新을!
2. 社會에 變革을!
3. 世界에 所望을!



THE GOSPEL NEWS

1月15日(木) <1976年> 第318号

發行所 福音新聞社

160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 2-3-18

電話 03(202)5398番

發行人 崔京植・編集人 金君植

毎月1回 15日發行 購読料 1部20円

昭和38年9月20日第3種郵便物認可

印刷所・青丘文化社

迎春



1976年 元旦

金元治
총회장의



新年
메시지

충실한 신앙생활 하자

新年은 우리에게 祝福된해

첫째 우리가 할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 자신이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자기 영적인 전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권유하는 것은 두번째 전도이고 첫째 전도는 나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간증생활 즉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사

新年을 祝賀합니다. 一九七五年도 어느덧 지나가고 七六年을 맞이하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언제나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됩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과거는 버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새로운 계획을 세워 나갑시다.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하지 못한 것, 또는 새해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들을 잘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使命을 꼭 실천하도록 합시다.

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기도, 성경, 예배 등의 신앙생활이 더 철저히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사회생활속에서 기쁨과 행복감이 저절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 잘하고 예배충족 잘하고 성경을 잘읽어도 늘 적절과 수심이 꼭차고 비판만을 하면 예수님도 그에게 너는 나와 관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첫째 전도에 우리가 성공하면 둘째 전도 즉 예수 믿으라고 권면할 때에 그 신앙의 인력에 감동하여 예수 믿기로 작정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는 예배충족에 좀 힘씁시다. 해마다 여러 교회에서 학습·세례 받는 사람이 있는데 교세는 도무지 늘지 아니하는 것은 예배충족을 등한히 하기때문입니다. 구도자가 년 20명이면 예배충족통계가 20명은 늘어야 하는데 예배충족은 다름이 없으며 다소 좋다고 하는데도 특별전도집회 또는 합동예배 혹은 목사·장로 위임식, 헌당식의 특별행사등의 숫자이며 고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 그원인이 있는가? 그것은 다름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구원의 확실성과 영적인 감격스러운 생활의 결핍에서 오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이 결핍을 고쳐 갑시다.

우리는 사회의 결함과 다른사람의 잘못됨은 잘 발견하면서 자기의 잘못은 잘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는 고쳐봅시다. 신년은 우리에게 축복된 해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해입니다. 이해에 우리들은 그야말로 축복받은 자 당게 멋지게 살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신도라는 자부심과 한국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집시다.

이 특권이야 어느누구가 가질수 있는가? 우리가 일본이라는 외국에 살더라도 변할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계시서 은혜로운 신앙자로서 재일동포에게 전도와 간증을 합니다.

새해는 그해에 무엇을 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크게 포부와 계획을 세워서 자랑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나 자신이 신도다운 생활, 한국인다운 생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찌서 나를 택하시고 또한 국민으로 하였는가 하는 신앙심에서 나오는 감격으로 이해를 충실히 지냅니다.

哲輝



그들은 形形으로는 順応하고
속으로는 反對하나 그것을나
타내지 않았다. 散戦上 反對
는 못하지만 美國國策으로日
本이 기독교교가가 되면 日
本은 美國이 좋다는대로 되
는 나라는 되기 때문에 싫
어했다. 따라서 眞으로 順応
하고 속으로 反對하는 괴물
였다. 우리의 かみさま(上様)
는 맥元帥다. 모든것을 かみ
さま가 命하는 대로 잘을으
라, 라고 선전했다. 元帥는기
배했다. 그러나 日本人의 속
은 神樣가 上樣면 언제
인가 없어질터이니 그때면日
칸단事件이 必要以上크게 모
도되었다. 그러면 다른 學校
에서는 그런일이 아니났을가
特別히 기독교학교가 사건을
치때면 더욱 酷하게 보도한
다. 왜냐, 그것은 좋은 人材
를 기독교학교에서 내지않고
日本民族主義학교에 내어 日
本の文化를 짓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例는 聖夜の TV를
보라. 말로 聖夜라고 하고,
俗된 술과 춤으로 축하하여
宗教的인것은 減하는 策으로
利用한다. 우리가 伝道하려는
터전은 이렇게 기독교에 대
한 偏見이있는 돌밭이다. 이

道者는 勿論 平信徒의 伝道者는 決心이 이 問題를 푸는 열쇠가 된다.

二、우리 總會以外的 同胞교회가 六教會있다. 이들과 교의 意識을 가지면서 교제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뜻은 가졌는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以上 交際를 가져야 하겠다. 둘째는 같은 同胞이므로 運命同一하기 때문이다. 斷切이 斷切일수록 우리의 福音의 運命에 損害되어진다. 따라서 多少의 희생이나 不快가 있더라도 忍耐로써 교會 機會를 만들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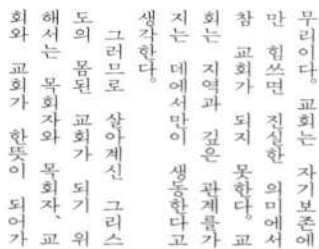
三、數年間の 우리의 福音으로 나온 社會行動을 보면 두가지 結果가 나타난다. 自身的의 운동하는 目的이 너무 순직하므로 外的勢力에 利用 당하거나 利敵行動이 됨은 感覺 못한채 넘겨져 왔다. 둘째는 「원은양 한원」에 過重視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自己 목숨을 내어준 真理를 덮어놓고 鬭爭한 結果였다. 왜 이런 失수를 했을까. 福音의 主觀에만 置重하고 흘러가는 「때」와 「곳」의 意識과 理解에 不足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信仰의 敎理訓練은 勿論이거니와 社會科學的 理解로써 潮流를 洞察하는 訓練의 機會가 있기를 바란다.

四、어떤 모임에서 某長老가 한 말씀은 이렇다.... 地方의 작은 교회 전도자들은 큰 教會의 도움으로 生活保障이 되니 태만하여져서, 교세도 늘구지 못한다.... 이것이 一見敎니까 銘心하여두기

위의 見解는 세가지 면을 살펴안았다. 즉 都市의 큰 교회와 地方의 작은 교회의事情의差、①各教會의 근처人口數、②各教會員의 距離의差、③各教會의 子算에 對한 一人當부담額의 多少等이다. 작은 교회일수록 부담금이 많음을 기억하자. 그리고 獻金은 받은 恩惠에 對한 감사의 뜻의 표다. 기독교 경제원리는 「能力있는대로 일하고需要에 따라 받는다」等을 理解시켜 둔때문에 다부지 많은 信徒의 교회를 만들고 싶다.

以上的의 네 제의에 對한 實施方法은 修養會、養成講座、新聞等으로 한가름씩 實施하고싶다.

関西地方会長 尹 宗 銀



海 春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이 온 교회우에와 人類우에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신년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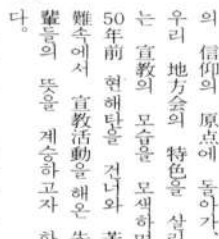
로 이모든 교회가 힘을합해서 선교사업에 매진 할것을 다짐합니다.

한편 생각할때 우리교회의 존재이유는 다른나라 교회가 추종 문제시 하지않는것 까지라도 선교사업에 중심과제로 되어있는것들이 몇가지있읍니다. 그것은 「在日」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기때문입니다. 여지없이 인간성이 파괴되어

중에도 2세, 3세의 구원을 위한 복음전도, 신앙교육, 민족교육 그리고 봉사정신양양의 양들이 우리교회에 있어서 시급한 일이라고 하겠읍니다.

자기를 잃어버린 우리제례가 자기찾기 운동을 말하여 복음전도 교회교육이 지향하는 것과 하겠읍니다. 이러한 교회사업들을 힘있게 받들고 나아가기위하여 우리교회는탄

西南地方会長 金 형 植



나라 오히려 苦惱의 根源과 싸우는 힘을 주는 것이니 생 각한다.

50年前 이九州의 땅에 宣 敎한 우리 先輩들도 그리했 으리라 믿는다. 따라서 우리 들도 信仰과 生活을 分離하 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信仰이 生活의 根源의인 힘 이 될수 있는가를 고찰하고, 實踐化하고자 한다.

具體的인 問題로서 이地方 에 있어서 人間답게 살고자 하는 關爭이展開되고있다(注) 이運動의 原動力은 福音信仰

主題の下になしてきた社会参与が、敎団の体制を整えてきた總會の単なる余裕から出てきたのか、それとも、主なる神と同胞の前での真実のざんげに基づいたものなのかの真偽は、これから困難な状況の中で、敎會がどのようにその信仰を告白していくのかに、かかっていると思います。今年度全協は、これまでの全協の歩みを継承しつつ、意識化と組織化の作業を通して全国の敎會青年とともに、我々青年に課せられた宣敎の課題を勇氣をもって遂行していくでし

그런 뜻에서 新年은 우리 地方會에 있어서 참으로 뜻깊은 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50周年記念宣敎大會를 開催、大委員長에 金得三牧師總務에 崔昌華牧師를 選任하고 特別 西南地方教會小史를 편찬하기로 하였다. 宣敎大會의 內容은 後日에 機會를보아 紹介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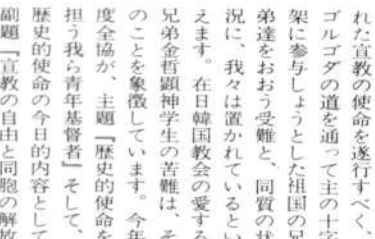
나는 信仰이란 단지 觀念에 지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聖書가 主張하는 信仰이란 現實生活에 깊어 뿌리박고 있다. 그러므로 信仰은 現實의 苦惱에서의逃脫에 힘을 빌려주는 것이 아

에 뿌리박고 있다. 우리들이 福音을 眞實하게 理解할때、人權運動에 無関心하거나 또 는 批判 非協力적인주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人間답게 살기 위한 鬭爭이아말로 信仰에 의한것이라고 認識할수 있지 않겠는가. 따라서 西南地方에 소속하고있는 全教會가 信仰의良心을 가지고 人權獲得運動에 參与하는 決斷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될줄 안다.

注、北九州市市役所에 在日韓国人差別撤廃の 人權運動

よう。差別と抑圧に苦しむ在日同胞の生活体験の中から、主が我々に語り給う生々しい福音の意味に、我々が新しくされつつ同胞と共にある解放の歩みを、鋭敏な感覚をもつて、模索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又、本國の兄弟達の祈りに耳を傾け、彼らのために祈り、支援活動を行ない、そしてそのことを通じて、我々自身が強められ、豊かにされるという連帯運動は、在日同胞社会の本國化という今日の状況にあつて、より一層、その連帯の内実を深めてきています。しかし、このような全協の歩みに對して、政治的—といっ

青年会全協代表委員 高



光 重

けた故に「時が良くても、悪くても勵む」(二テモテ四・二)のであり、困難な状況につきすすむ信仰と、それに基づく力強い一致が、要請されていると思います。主なる神から受けた私達の宣教の課題とは、社会に蔓延する同胞の苦悩から隔離された礼拝や伝道活動ではなく、神の姿に造られ、キリストが命を捨てて愛し給うた同胞のために働くことであり、同胞の解放を指

のひとつが、政治的抑圧であるならば、勇氣をもって、それとも戦わ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あり、そのような宣教の道を、「政治的」という言葉にかくれて回避しようとするこそ、政治的な非福音的な判断に他ならないという事です。

最後に、全ての教会青年とともに、愛する兄弟金哲顯神学生のために祈ります。主なる神が常に彼と共にいますように。金哲顯神学生の苦難に、深く心を痛め悲しまれる主の姿に、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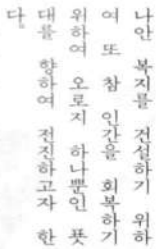
をめぐして」を掲げたのも、そのような在日韓国教会の宣教にとつての厳しい状況を反映しているのに他なりません。しかし、私達は、その宣教の課題を人から受けたのではなく、主から受

向して、同胞を蔑視し、抑圧する全ての勢力、全ての思想と戦い、この社会にキリストの主権を確立することに他なりません。宣教六十年をむかえて、「キリストに従つてこの世へ」という

關代表의 新年포부

긴밀한 연대로 전도

中部地方会長 李 海 春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만의 식별한 기관인 교회 는 흠어진 개인의 모임이 아 니고,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부름을 받고 모이는 하나의 공동체이다. 모든 교회가 진 도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들 예수·그리스도께서 세상
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나
다. 「인자의 온것은 잃어버
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
이니라」는 결정적인 사실이
신년에는 한층더 심철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關西地方會에 속한 교
전도소만해도 20個處이르
는 것을 바로는 사람만이 부
도, 형제, 이웃 그리고 동료
와 세계 인류를 바로 이해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인간의 참 이해가 있는 곳
에 사랑의질이 전개되며 사
랑의질이 열리는 곳에 전도
교육 그리고 봉사의 활동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라도 시행할때 거기 새로
운 전진이 약속되는 것입니
다.

과거에 부합된 사람이냐고
회가 되지 말고 내일의 사람
내일의 교회를 바라 보면서
모두가 임하는 교회 형성을
기하는 바입니다.

仁淑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은사를 받으시기를 위하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온 인류에게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히 在日大韓基督敎會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一年을 회고하여 불대 카나다長老敎會敎育百年을記念하여 KCC 아리랑合唱團이 訪加하여 約1個月 演奏旅行을 했습니다. 그間に 團員들의 受苦도 많았지만 얼마나 喜樂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以上の 것으로 할수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在日韓國人이라는것을 너무나도 過少評價함으로 結果는 아무責任도 積極的인 奉仕도 못하는것이 當然한듯 錯覺하고 있지는안았던가. 信仰의으로는 本國의 敎勢에 比해 우리는 問題가 아니라하고 經濟的, 社會的으로는 日本이란 惡劣條件안에 있다는것으로 우리 스스로가 絶對的인 「마이노리티」로 물아 넣어버리고마는 감을 금할수 없습니다.

女性의 해라고 國際的인 往來가 많이있는 今年은 우리에만 正當을 주려 自身을 解放을 위하여 貴한해가되기를 기도합니다.

家庭에서 敎會에서 내아들 내딸뿐 아니라, 다른사람의 子女들에게도 사랑의 使命이 있다는 것을 正心히 느낍니다.

모든것을 選擇할수있는 自由의 나라 日本에 살면서 祈禱합니다.

在日大韓基督敎會總務 崔京植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아프리카 케냐의首都 나이로비에서 세계基督敎會議會(WCC)第5回總會가開催되었다.世界90余個國の2百90余教會信徒約6億)構成되어있는이WCC는7年에1回모이는總會이다만큼그야말로亜細亞,아프리카의第三世界를 비롯한西歐,北美,東歐,南美,中東等世界各處의프로테스탄트(新敎)와共產團의正敎會등正式代表友邦代表特別招請指導者各種色의代表들과各國의マスコミ의記者등合해서約3千名이 모여들어盛大히開催한 것이었다.WCC는世界政治機構인國連(U.N)과같이世界敎會의共同體로서一九四八년에成立以後分裂되어있는世界의敎會와現實을直視하면서그리스도·예수의福音을中心으로오늘의時代에敎會가지고있는人類의問題를解決토록研究하며實踐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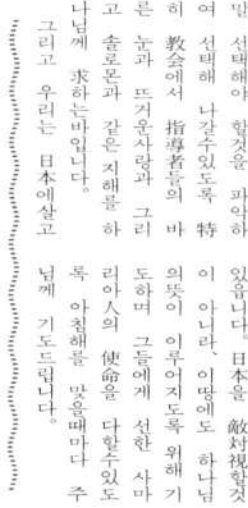
금번 WCC가「예수·그리스도는自由케하시고하나되게 하신다」란主題를걸고大會를모인것도은敎會와人類가바라보는그리스도만이참으로解放하는분이고요統合하는분임을 믿고現在世界가當面하고 있는政治的,經濟的,文化的,不條理와抑圧에서解放받는것이人間의自由를保證하는일로確信하여具體적으로써우는것이即敎會의使命이었다고宣敎의一致가있다고보는 것이다.

이번總會는全体會議과分科會를中心으로推進되었으며分科會에서熱烈히檢討한具體案件들을總會上로呈하여決議하는形式을取하였다.특히在日韓國人問題와같은關係를 갖고있는人種差別分科會에서는人種과民族差別鬭爭에 있어서運動的政治적으로混同되지쉬우나人權問題에限해서만支援자는論議가 있었다.그러나政治나人權이나아니라그늘어있는狀況속에서참으로弱者를 살리며自由케 하는것이敎會의宣敎教義를確認하고在日韓國人問題는南아프리카の人種差別,美國의인디안問題들과함께 다루기로 하였다.그러나WC 총회席上에上呈된무엇에도在日韓國人問題는分科會에서取扱된問題이지총회議하였다. 이것은 WCC人種差別撤廢委員의勞苦와日本 및世界敎會의協力이있어서 된것으로 믿고宣敎의一致를감사하는바이다.

印象 깊은 것은 각자 나라의事情과背景이 다르지만, 그差異를徹底히認識하면서 하나의 큰그리스도의共同體가 되어宣敎를 위해서 서로交流하며協助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WCC에서婦人代表들의活躍과貢獻을 보고 타복하였다. WCC議長団6名中2名이女性이며中央委員會百30名中29名이婦人임을 본 것을 일수 있으며 WCC의將來와女性들과 함께 새로운宣敎의歷史를創造할것을여의브터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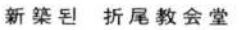
在日韓国人問題研究所々長

李 仁 夏



자녀 제31回總會時 社會局의 標語 "지극히 작은者 하 나를 위하여 (마태二五章)가 全總會의 社會活動基本姿勢로 採択되었다. R A I K의 所長으로 新年度의 展望을 福音新聞의 讀者들에게 말씀드 協助를 要望할때 역시 自來水의 社會活動이란 根本에 있는 福音運動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狀況에政治 經濟 社會의 機構로 抑壓과 差別로 지극히 작은者가 苦痛을 당하고 있는 主님 에수가 多다. 많은 協助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總	助로 지난 12月初에 工事完
會傘下 各教會의 아낌없는協	了, 12月7日主日 入堂礼拝를



金 桂 昊

在美韓人교회의 展望 (2)

金 桂 昊

둘째로 美国社会는 東洋社会와는 相当하다. 生活風習이 多르고, 文化도, 生活感情도 다르다. 그리고 美国社会가 合理的이고 機械文明의社会이기에 東洋人들의 情으로 연결된 따뜻한 사람이 없는 冷情한 社会이다.

그러기에 移民은 韓国人은 무척 고독하다. 이 고독한 마음을 안고, 教会를 찾아, 教会에서 慰勞받고 같은民族을 만나 情을 나눈다. 그러기에 教会는 在美韓人에게 必要한 存在이다.

셋째로 教会의 強力한 伝道活動이다.

家庭을 訪問하여 家庭과 에 수그리스도와와 關係를 맺게 하며, 職業을 알선해주며 어려운問題의 解決을 통하여 에 수그리스도애로 마음의 문을 열게 한다.

이와같이 在美韓人教会는, 基督敎의 社会環境과 고독한 人間의要請과 教会의 사랑의 証言을 통하여 飛躍의으로 成長해간다.

그러나 在日韓人教会는 다르다. 教会는 작지만 1億2

千萬의 日本놈들을 敵으로 대 對決한다. 1億2千萬의日本놈들의 不當한 差別社会를 밀바닥으로부터 뒤엎드려 놓는다. 앞으로 이 작은 教会가 巨大의 死闘을 통하여, 勝利의 모습으로 浮現한다.

在日韓人教会는 在美韓人教会와는 달리, 異邦人 社会에 뿌리박은 작은 教会이다. 學校에가도 会社나 또는 社會에나가도 信仰이 없는 人間들로構成된 異邦人의 社会이다.

社会環境의 支配에 굴복하는 弱한 巨人이 아니라 社会的인 配에 反抗하여 在日韓人人의 解放과 그의運命을 등져가는 強力한 작은英雄이다.

數字와 物理的集團을 가져서 對決하는 教会와는 달리 自己個性과 主体없이는 存在할수없는 異邦社會에있기에 이 작은 在日韓人教会의 壽命과 그의 強力한 生命의 展望은 불명한 그무엇인 것이다.

西南地方婦人会・青年会

지방 시부리 연결성탄 교회에서 남지방의	12월7일(日) 저녁6 시부터 연결성탄 가졌다. 이것은 젊은 여성회 가졌다. 이것은 3만2천원은	회장 은후 순서로써 거운 특별헌금	辛卯連作의 오후8시까지 서로 교제하며 가졌다. 이날의 3만2천원은	인사가 재미있는 교제하며 이날의 ①本	國에서 구축당할 위하여 의 현재 자매들 하였다.
-----------------------------------	--	--------------------------------	--	----------------------------------	---

長老會 聖餐會

小倉、折尾、福岡 熊本 5 教
會가 協力하여 盛大하게 거
행하였다. 熊本教會婦人會가提
供한 저녁밥을 맛있게 먹은
후 박태심씨의 사죄로 金得
三목사의 「큰가뽏의 소식」
이란 설교, 그동안 각교회단
위로 연습 준비한 音樂과 합
창이 있음후 金承俊목사의祝
禱로 第一部를 마쳤다.

제2部는 김박심씨의 사회
로 青年會西南地方連合會會長
元昭三, 婦人會西南地方連合會
史를 專攻하는 立場에서 韓
國現代思想

生連合聖誕祝賀會가 지난 12月
16日 東京教會에서 가졌다.
關東地方에서는 本국에서 留
學오신 敎授者가 많아 우리
교회와 異域에서 研究生活에
苦生하시는 留學生들과 交際
할수있는 機會로 每年 聖誕
節祝賀會를 갖고있다.

伝道部長 吳允牧師의 성
탁침례시자가 있음후 池明觀
敎授(東京女大)의 講演이있
었다. 池敎授는 韓國現代思想

을 전개하였다. 本국에서
학오신 이동원敎師(農村神
校) 김규복선도사(두터神學
校) 이대근목사 이천수목사 최
관목사 김경준목사 以上東
神學大學) 등의 참석하였다

長老 姜 重 求 東京都足立区梅田四一三〇一七 電話〇三(八八九)二六五七	長老 權 泰 岳 東京都世田谷区成城四一八一五 電話〇三(四八二)七八三三	長老 李 禎 烈 浜松市木戸町六一八 電話〇五三四(六三)五一三九	伝道師 沈 恩 澤 東京都新宿区若宮町二一四 電話〇三(二六八)八八九一	牧師 吳 允 台 東京都文京区本郷四一一二一四 電話〇三(八一)一八三二	長老 權 富 仁 船橋市前原西一一一七一 電話〇四七四(七二)二二三八	牧師 孟 哲 輝 船橋市宮本六一二五一三 電話〇四七四(二二)七四二四	牧師 李 聖 柱 札幌市豊平区美園一条三一八一二 電話〇一一(八二二)五五六七
--	--	--	---	---	--	--	--



新 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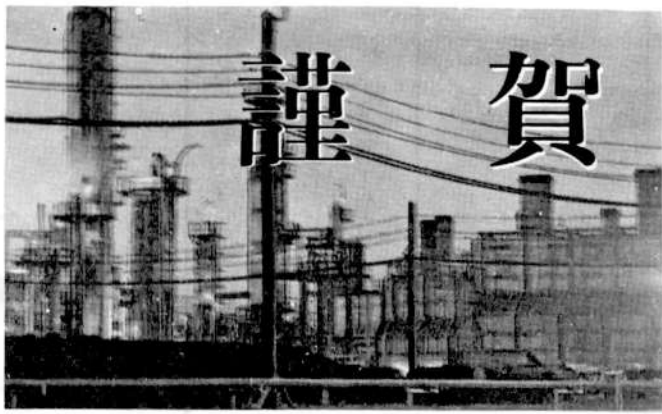
1976年 元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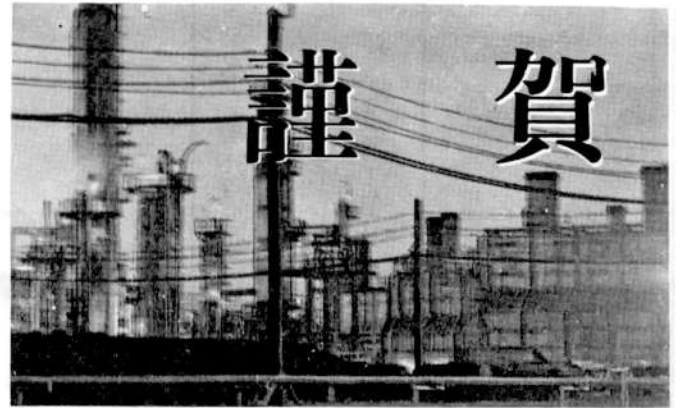
長老 尹 官 炳 東京都渋谷区千駄ヶ谷一六六二 電話〇三(四〇五)五八九八	長老 吳 京 世 東京都文京区西片二一四一三 電話〇三(八一)〇三六六	長老 李 東 和 東京都江東区永代二一一一三 電話〇三(二六二)六四三三	牧師 李 大 京 東京都足立区西新井本町四一三五二四 電話〇三(八九〇)三三六五	長老 金 漢 弼 東京都足立区西新井本町四一三五二四 電話〇三(八九〇)〇九五二
--	--	---	---	---

牧師 姜 榮 一 東京都調布市下石原一六七五 電話〇四二四(八三)四一三一	伝道師 宋 敬 信 東京都渋谷区代々木一一二二一 電話〇三(三七九)五五七九	牧師 李 仁 夏 川崎市川崎区桜本一八一二二 電話〇四四(二八八)二九三〇	牧師 小 杉 尅 次 川崎市川崎区浜町一一二〇一二 電話〇四四(三五五)八三九九	長老 金 聖 河 横浜市神奈川区西神奈川町一一 電話〇四五(四四二)八五八〇	長老 金 鴻 植 横浜市神奈川区西神奈川町一一 電話〇四五(四四二)八五八〇	牧師 金 君 植 横浜市中区打越三三九 電話〇四五(二六一)四一九六	長老 李 永 欽 横浜市中区高根町一一一三 電話〇四五(二二二)一八六〇
--	---	--	---	---	---	---	---

長老 金 連 伯 横浜市中区西の谷二二三 電話〇四五(六二三)四一四一	講道師 朴 米 雄 横須賀市公郷一五一一四鈴木荘 電話〇四六八(五三)八四四五	牧師 白 炳 洙 豊橋市八町通五一五六 電話〇五三二(五四)七〇一九	名誉長老 李 相 龍 豊橋市鮑海町二五一一 電話〇五三二(五三)〇三三三	牧師 李 海 春 岡崎市鴨田町南魂場一六一一 電話〇五六四(二二)七〇二五	牧師 黃 義 生 名古屋市中区江西町三一三四 電話〇五二(五七)九三二四	伝道師 朴 恩 淑 名古屋市中村区島崎町一八一六 電話〇五一(五四)一九八〇	長老 徐 載 焄 名古屋市中村区亀島町三一三三 電話〇五一(四五二)四〇〇三
--	--	---	---	--	---	---	---

長老 趙 元 國 名古屋市中村区沖田町三一二 電話〇五二(四六一)八二四四	長老 朴 憲 燮 名古屋市中村区牧野町二一八 電話〇五二(四五二)五六六六	長老 金 光 洙 名古屋市中村区猪高町猪子石原 電話〇五二(七七)五九五二	長老 徐 又 春 名古屋市中村区西米野町四一六 電話〇五二(四六一)一五一八	牧師 申 鉉 錫 岐阜市長良海用町一一二七 電話〇五八(三三)〇九二五	長老 金 炳 淇 岐阜市長良八代三一六二二三 電話〇五八(三三)六九五四	長老 金 再 龍 岐阜市長良真福寺三三三二一二 電話〇五八(三三)四四六二	講道師 金 顕 球 大垣市本今町三一三三四 電話〇五八四(七四)八四八六
--	--	--	---	--	---	--	---

大垣教会 長老 徐永均 大垣市新町一―四八 電話〇五八四(八一)三四二九	桑名伝道所 牧師 朴命俊 岐阜市長良平瀬三三三七―一 電話〇五八二(三三)一三六二	京都教会 牧師 楊炯春 京都市右京区西院坤町九七 電話〇七五(三三)一一一六	京都教会 長老 金在述 京都市右京区西院南高田町四 電話〇七五(三一)四〇〇八	京都教会 長老 俞錫濬 京都市右京区西院寿町一九 電話〇七五(三一)一二七七	京都教会 長老 曹畢律 京都市中京区壬生東土居ノ内町二九 電話〇七五(三一)一一八六	京都教会 長老 金昌業 京都市右京区西院西淳和院町二二 電話〇七五(三一)〇〇六三	京都教会 長老 金載旺 京都市右京区山田北山田町三二―一七 電話〇七五(三九)五三九六
賀 謹 							
京都教会 長老 金昌日 京都市左京区高野清水町九 電話〇七五(七八)八〇三六	京都教会 長老 金徳洙 大坂市生野区鶴橋四一五―四 電話〇六(七七)四三五六	大阪教会 牧師 金徳成 大坂市生野区中川西二一六一―〇 電話〇六(七三)六八二八	大阪教会 牧師 金安弘 豊中市庄内幸町二―一二二四 電話〇六(三三)五二二三	大阪教会 協力牧師 李宗憲 大坂市生野区小路東三一六一五 電話〇六(七三)六八二八	大阪教会 長老 金徳成 大坂市東成区玉津二一六一―三 電話〇六(九七)〇七二〇	大阪教会 長老 金京秋 大坂市東成区東小橋三三四―一二 電話〇六(九八)二九八〇	大阪教会 長老 呉在憲 東大坂市大連東二―一三一二四 電話〇六(七二)八六七八
大阪教会 伝道師 朴晶子 大坂市生野区中川西二一六一―〇 電話〇六(七三)六八二八	大阪教会 長老 劉時漢 大坂市生野区中川四一六一―一四 電話〇六(七五)九八九三	大阪教会 長老 尹用道 大坂市生野区中川四一七一二 電話〇六(七五)八一四九	大阪教会 長老 金官玉 大坂市生野区桃谷四一三―三 電話〇六(七七)八〇二四	大阪教会 長老 文昌叔 大坂市東成区東今里二―一八 電話〇六(九八)四八四六	大阪教会 長老 金郡化 大坂市東成区玉津二一六一―三 電話〇六(九七)〇七二〇	北部教会 長老 金聲振 大坂市淀川区元今里北通三―三八 電話〇六(三〇)五〇六四	築港教会 長老 金仲泰 尼崎市東園田町九一八―一五 電話〇六(四九)四七八一
西成教会 牧師 金元治 大坂市西成区梅南二―四二九 電話〇六(六五)五一九六	西成教会 長老 金正三 大坂市西成区旭三一六一―三六 電話〇六(五六)一八三〇	北部教会 牧師 韓在秀 大坂市大淀区本庄東通二―四〇 電話〇六(三七)一九一四	北部教会 長老 鄭敬子 大坂市大淀区本庄東通三―三〇 電話〇六(三七)七六五九	北部教会 長老 林學周 大坂市淀川区西中島町一―三二三 電話〇六(三〇)四二六〇	北部教会 長老 李小龍 大坂市北区梅田町六 電話〇六(三〇)五〇七三	平野教会 長老 朴根濟 大阪府八尾市竹淵三九〇 電話〇六(七〇)〇〇一九	平野教会 長老 朴根濟 大阪府八尾市竹淵三九〇 電話〇六(七〇)〇〇一九
平野教会 牧師 丁仁壽 大阪府八尾市竹淵三二―一〇 電話〇六(七〇)一五五九	平野教会 長老 朴根濟 大阪府八尾市竹淵三九〇 電話〇六(七〇)〇〇一九	平野教会 長老 関重三 大阪府八尾市竹淵五四九 電話〇六(七〇)八〇一四	平野教会 長老 邊萬柱 大阪府柏原市柏原町七五一 電話〇七二九(七二)一〇六三	枚岡教会 臨時堂會長 崔忠植 京都市南区東九条札之辻西入 電話〇七五(六九)二九〇一	布施教会 牧師 李昌雨 大坂市生野区小路東二―三二四 電話〇六(七五)一五七九	明石伝道所 牧師 辛鐘國 明石市大久保町大窪二一六一―六 松竹荘	堺教会 牧師 尹宗銀 堺市少林寺町二―一四 電話〇七二九(三三)五三八二



堺教会 長老 李成基 大阪府南河内郡美原町大保 電話〇七二三(六六一)五三〇〇	武庫川教会 牧師 洪永其 尼崎市南武庫之莊二一三三一一八 電話 〇六(四三八)四一三一	武庫川教会 長老 金晩俊 西宮市上元町三〇一三二九 電話〇七九八(六五)八一九二	西宮教会 牧師 李炳球 西宮市芦原町四一八九 電話〇七九八(六七)六九八八	川西教会 牧師 朴昌煥 川西市絹延町二一一三 電話〇七二七(五九)二七五二	川西教会 長老 方樂實 川西市小戸三二二三一一四 電話〇七二七(五九)三一六五	神戸教会 牧師 金瓊燦 神戸市長田区蓮池町二四 電話〇七八(六九)一六二七	神戸教会 長老 張尚宰 神戸市須磨区若木町二一一三 電話〇七八(七三)〇二四二
神戸東部教会 牧師 金炯卓 神戸市灘区灘北通五一四一 電話〇七八(八七二)四八五五	神戸東部教会 長老 韓胤周 神戸市長田区四番町六一八 電話〇七八(五七六)七三八〇	謹賀新年  1976年 元旦				水島教会 伝道師 鄭榮禧 倉敷市水島南島町五一三 電話〇八六四(四四)五五一五	水島教会 伝道師 申英子 大垣市本今町三一三四 電話〇五八四(七四)八四八六
岡山教会 牧師 金德化 岡山市奉還町一一一〇一九 電話〇八六一(五四)二三五一	広島教会 牧師 金信煥 広島市上天満町九一三 電話〇八二二(三三)四七三九	三次教会 伝道師 鄭京姫 三次市三次町二三三二 電話(呼)〇八四六(三三)二七〇四	宇部教会 牧師 金承俊 宇部市西中町九一三一 電話〇八三六(三三)五四〇〇	宇部教会 長老 裴基秀 宇部市西中町九一三一 電話〇八三六(二二)五八二二	下関教会 長老 李先祚 下関市彦島江之浦四一七 電話〇八三三(六六)四〇八六	下関教会 長老 金道植 下関市東神田町六一三 電話〇八三三(二四)二四四七	小倉教会 牧師 崔昌華 北九州市小倉北区白銀町一六六七 電話〇九三(九二)八七五六
折尾教会 牧師 金榮植 北九州市八幡西区大字折尾字大池 電話〇九三(六九)三〇七二	折尾教会 長老 文鳳錫 北九州市八幡西区穴生四一四六 電話〇九三(六二)二九一七	折尾教会 長老 吳羽象 福岡県遠賀郡水巻町古賀 電話〇九三(六九)三九二五	福岡教会 牧師 H.G. Davis 福岡市博多区千代五一五二一 電話〇九二(六五)九七八六	福岡教会 長老 崔永模 福岡市博多区東吉塚三一七九五 電話〇九二(六一)二〇九二	福岡教会 長老 金基炫 福岡市博多区吉塚天満町五一二 電話〇九二(六二)八九一八	福岡教会 長老 李宗燮 福岡市博多区千代一一八一 電話〇九二(六五)〇五二五	熊本教会 牧師 金得三 熊本市本山町五五九五 電話〇九六三(五三)四三九五
熊本教会 長老 朴善鉉 熊本市南熊本町一一二四 電話〇九六三(六二)五八二二	熊本教会 長老 安秉珰 熊本市水前寺六一七一七 電話〇九六三(六四)九〇五一	在日大韓基督教会總會 總務 崔京植 東京都新宿区若宮町二四 電話〇三(二六〇)〇七八一	在日大韓基督教会總會 宣教師 M. Hyndman 東京都新宿区若宮町二二 電話〇三(二六八)五八八七	在日韓国基督教会館(KCC) 牧師 J. MacIntosh 大阪府生野区中川西二一六一〇 電話〇六(七五二)一八一三	伝道局幹事 牧師 田永福 京都市右京区下津林佃五七二二 電話〇七五(三九)五九三三	在日韓国YMCA 牧師 李處權 東京都千代田区猿樂町二一五一一 電話〇三(二九)一五一五	在日韓国YMCA 牧師 李泰雨 東京都千代田区猿樂町二一五一一 電話〇三(二九)一五一五